

‘하박국 개요’

1. 저자 및 기록 연대

- 본서의 저자는 선지자 ‘하박국’이란 사실에 큰 이견이 없음.
 - 성경 스스로 1 장 1 절을 시작하면서 이 책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증언!
 - ‘하박국’이란 이름의 뜻은 ‘껴 얹는 자’, ‘매어달리는 자’란 의미.
 - 이름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적 의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!

-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인가?
 - ①. 고대 유대의 랍비들은 열왕기하 4 장 16 절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축복으로 수넴 여인이 낳은 아들이 ‘하박국’ 선지자일 것이라 주장 했음.
 - 그러나 이런 주장은 1 세기 이상의 시대적 차이가 남으로 신빙성이 없음!
 - ②. 대신 하박국 3 장 1 절, 19 절을 보면 전문적인 음악용어들이 사용된 것을 볼 때,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레위 지파에 속했던 찬양대원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!
 - 그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증언은 없음.
 - 참고로 몇몇 성경 학자들은 하박국 선지자를 구약의 ‘도마’라 칭하기도 함.

- 본서의 기록 연대
 - 1 장 6 절에 등장하는 갈대아인들의 세력이 막강한 때를 추측해 보면, B.C.612-605 년 사이로 추론 가능.
 - 1 장 6 절, ‘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,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’
 - 참고로 B.C.612 년 메사와 바벨론 연합군은 ‘니느웨’(앗수르)를 멸망시켰고, B.C.605 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1 차로 침략하게 됨!
 -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 ‘여호야김’ 시대에 사역했던 유다 왕국을 위해 일한 마지막 선지자로도 추측해 볼 수 있음.

2. 본서의 중심 주제와 내용, 핵심구절

- ‘하박국’서의 중심 주제!
 -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,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줌!
 -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악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언!
 - 그러므로 의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고, 믿음으로 살아야함을 선포!

- 중심 내용
 - 본서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나열하면서 호소한 선지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, 그리고 그 답을 들은 선지자의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● 크게 3부분으로 구성.

- ①.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대답: 1 장 1-11 절
- ②.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대답: 1 장 12-2 장 20 절:
- ③.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: 3 장 1-19 절

■ 핵심구절: 2 장 4 절

‘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,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’

- 참고로 이 구절은 바울 사도에 의해 ‘이신득의’ 신앙의 핵심구절로 반복되어 사용되었고, 16 세기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행할 때 이 구절을 기본 신조로 사용한 개혁신교회 신앙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음!

❖ 하박국 1, ‘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첫번째 답변’

1. ‘하박국’서의 서론 : ‘선지자 하박국이 목시로 받은 경고라’ (1 절)

- 여기서 특별히 ‘경고’라는 단어의 히/원를 주목! => 이것은 ‘맛샤’라는 말로, ‘짐’이란 뜻!
 - 곧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를 ‘짐’이라 표현하여,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!
 -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!
 -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고 무겁게 여기면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할 것!!

2.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/호소 (or 불평(e)) (2-4 절)

1) 하박국 선지자는 3 가지 질문(불평)을 하나님께 드림! (2-3 a)

- ①.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나요?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하나요? (2 a)
 -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질문이 아닐까?
- ②. ‘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’ 왜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? (2 b)
 - 이것은 당시 불의의 편에 선 통치자들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!
 - 참 성도는 세상의 온갖 폭력들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!
- ③. 왜 죄악을 보게 하시고, 패역을 보게 하시나요? 곧 왜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? (3 a)
 - 특별히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호여김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여러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며 범죄하던 시대!

-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패역을 바로 벌하시지 않고 그냥 두어서 보게 하시는지 탄식하며 질문한 것!
- 참 성도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항상 탄식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!

2)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하박국 선지자 (3 b -4)

■ 크게 4 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함!

- ①. 겁탈과 강포가 내 눈 앞에 있음!
 -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약탈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는 것!
- ②. 변론과 분쟁이 일어남!
 - 같은 조상의 후손 곧 형제들끼리 서로 시비하며 다투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!
- ③. 율법이 해이하고,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!
 - 경건과 거룩,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할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!
- ④.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음!
 - 공의를 실천하고,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지도층들 특별히 재판장들이 타락하여 악인들과 벗하니 불의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!

3.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 (5-11 절)

- 1)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믿지 못할 ‘놀라고 또 놀랄’ 일을 한 가지 행하실 것이라 답변하셨습니다. (5 절)
 - 5 절, ‘여호와께서 이르시되,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.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.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’
 - 특별히 ‘놀라고 또 놀랄지어다’의 히/원어, ‘히탐메후’란 말은 놀라움의 최고 절정을 의미함!
 -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랄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!
- 2)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게 놀랄 그 일은 무엇일까?
 - => 그것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일이 아니라, 오히려 유다를 멸망하게 하실 일!
 - => 곧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(바벨론)을 강하게 일으키신다는 것!!! (6-10 절)
- 그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? (6-8 절)
 - ①. 사납고 성급한 백성 (6a)
 - ②.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백성 (6b)

③. 두렵고 무서운 백성 (7a)

④.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백성 (7b)

-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 생각하고,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란 뜻!
- 곧 교만이 극에 달한 민족!!

⑤. 막강한 군대와 군사력을 가진 백성들..(8)

- 예: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, 마병들은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처럼 빠름!

▪ 하나님은 이런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이 마치 토네이도처럼 몰아치며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! (9-10 절)

①. 강포를 행하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! (9 절)

②. 모든 왕들을 업신여기고, 통치자들을 비웃고. 견고한 성도 우습게 여기며, 흑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다 점령할 것! (10 절)

3)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자기 힘을 신으로 믿으며 악을 행하는 죄인들이기에 그 마지막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. (11 절)

▪ 11 절, ‘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.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’

• C.E.V. 번역 참고

‘Then suddenly they disappear like a gust of wind -- those sinful people who worship their own strength.’

4. 그럼 하나님은 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이와 같은 답변을 주셨을까?

-
-
-

5. 오늘 내용을 보면서 드신 생각은?